

Effect of Domestic Violence on Aggression: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Dysregulation Moderated by Social Support

Minsu Kim* & Changhyun Lee**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domestic violence affects aggression through psychological processes.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whether emotional dysregulation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violence and aggression, and to test whether social support moderates the mediating effect of these two variable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316 subjects living in Korea to test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First,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dys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violence and aggression was significant. Second, social support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dysregulation and aggression. Third,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dys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violence and aggression was moderated by social support. These results suggest the need to implement interventions that include emotional dysregulation or social support for clients who complain of aggression due to domestic violence in counseling settings.

Key Words: Domestic Violence, Emotion Dysregulation, Social Support, Aggression, Moderated Mediation Effect

□ 접수일: 2024년 4월 19일, 수정일: 2024년 4월 28일, 게재확정일: 2024년 4월 28일

* 주저자, 광운대학교 상담심리치료전공 석사

(First Author, Master, Kwangwoon Univ., Email: go4474@naver.com)

** 교신저자, 하나임상심리연구소 소장

(Corresponding Author, Director, Hanaimsang Institute, Email: diapanna@gmail.com)

I. 서론

인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과 환경이 주로 거론된다. 개인적 요인에는 정서, 사회, 성, 대인관계뿐 아니라, 특성과 관련된 기질 및 성격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가족 및 또래 관계, 부모 및 교사와의 갈등, 성장 환경 및 소득 수준 등이 있다(최지영·배라영, 2014). 심리적 요인 중에서 잘 알려진 것으로는 좌절-공격성 이론(frustration-aggression theory)이 거론된다. Berkowitz(1989)는 ‘공격성이 공격적 행위로 반드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는 좌절-공격성 이론을 주장했으며, 특히 개인은 자신의 통제권을 벗어나 생존이 위협받을 때 공격성이 높아짐을 밝히기도 했다(Breuer & Elson, 2017).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는 심리적 통제, 거부, 학대, 제재와 같은 부정적인 부모 양육 태도에 주목하고 있으며, 최신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이 공격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가영·최응렬, 2022).

가정폭력은 가족이 같은 구성원에게 의도적인 물리적 힘을 가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해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김승경 외, 2014). Gelles(1997)에 따르면, 가정폭력 경험은 청소년과 아동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가정폭력 경험이 청소년의 공격 행동을 강화하고 학습시키며, 폭력이 전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박형원, 2004), 가정폭력은 정서조절을 어렵게 만들고, 절망감, 우울, 자살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발현한다는 결과도 존재한다(김우준, 2012; Emery, 2011). 결과적으로, 청소년에게 있어 가정폭력의 경험은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며,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심지어 이러한 가정폭력의 영향은 초기 성인기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Graham-Bermann & Hughes, 2003). 실제로 10대 초반부터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공격성 수준이 높고, 10대 초중반 시기 내내 공격성의 수준이 높았으며, 이후 4년간 추적한 결과에서도 높은 공격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애리, 2014). 이 외에도 많은 연구들에 의해 가정폭력 노출 경험과 공격성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김재엽·송아영, 2007; 박애리, 2014; 정기원·서현숙, 2007).

가정폭력과 같이 아동기에 경험한 외상 사건들은 정서조절능력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err, 1991). Luxenberg et al. (2001)은 외상 후 변화 중 가장 큰 역기능적 현상으로 ‘정서조절곤란’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정서조절 문제를 어린 나이에 경험할수록 애착 형성과 신경 생리적 발달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

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학대 아동은 일반적인 아동에 비해, 훨씬 공격적, 충동적인 성향을 더 많이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최지경, 2007). 한편, Goodman et al. (1993)에 따르면, 정서조절능력이 낮은 아동은 사려성이 부족하여 대인관계에서 충동 및 공격적인 경향을 보일 수 있다. 또한, 정서조절곤란은 생리적 긴장감을 증대시켜 공격적 행동의 통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Roberton et al., 2015). 실제로, 정서조절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공격성 수준이 유의하게 높다는 결과가 존재하며(이희경 외, 2013), 정서조절 훈련을 통해 정서조절능력이 증가하게 되면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된 바 있다(Eisenberg et al., 1994). 즉 정서조절곤란은 공격성의 증가에 유의하게 기여하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욕구 중 기본적인 충족 요인으로서, 심리적 안녕과 적응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타인의 믿음과 지지를 통해 충분한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것을 말한다(Hupcey, 1998). 사회적 지지는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제시되기도 하지만(정경택, 2003), 주로 다른 변인이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권구택, 2018; 송인한 외, 2011; Hawkins et al., 1992). 예컨대, 다양한 취약성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가 충분히 제공되면 공격성 수준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한다(김진숙 외, 2014; 정경택, 2003; Kumar et al., 2015). 그리고, 긍정적 사회적 지지를 받는 청소년은 사이버 폭력을 행하거나, 사이버 폭력의 피해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Accordino & Accordino, 2011). 이는 곧 충분한 사회적 지지의 제공이 청소년의 폭력 가해 행위나 피해 경험을 완화하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가정폭력, 정서조절곤란, 공격성 간의 관계를 보았는데, 종합하여 살펴보면 정서조절곤란을 포함하는 관계로 연결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만 고려해서는 매개효과가 어떤 사람들에게 강하고 약한지에 대한 개인차에 대해 설명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다른 변인들이 공격성 증가에 미치는 효과를 완충시키는데 유의하게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들에 주목하였다(이경진·이창현, 2023).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게 도와주는 가장 큰 원동력이며(Wang & Eccles, 2012), 공격행위의 발현을 억제하는 효과를 지닌다(남연주 외, 2022). 사회적 지지는 가정폭력 경험이 공격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김나예, 2019). 제시된 결과들은 정서조절곤란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사회적 지지가 완충작용을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사회적 지지를 정서조절곤란과 공격성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으로 가정하고자 한다.

가정폭력은 교사, 양육자 등의 권위자나 애착에 초점을 두던 기존의 연구와 달리 공격성을 유발하는 선행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한 결과가 증가함에도 가정폭력이 어떻게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개인별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 지에 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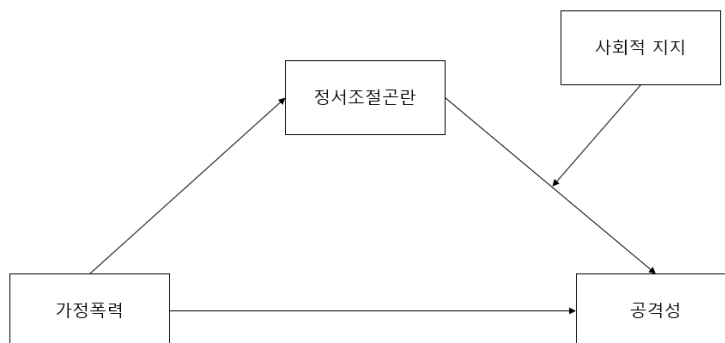
가정폭력이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최지경, 2007), 정서조절곤란이 공격성 증가에 유의하게 기여한다는 결과(이희경 외, 2013), 그리고 가정폭력이 공격성을 유의하게 예측한다는 결과(박애리, 2014) 등의 선행연구들은 정서조절곤란이 가정폭력과 공격성을 매개할 가능성의 근거가 된다. 아울러 잠정적 매개변인인 정서조절곤란은 사회적 지지와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정윤정·이창현, 2022), 사회적 지지가 공격성을 조절하는 부분(김나예, 2019)을 고려하면, 사회적 지지가 정서조절곤란과 공격성 간 영향을 조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절된 매개모형을 상정함으로써 이러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통합하여 살펴볼 것이며, 이러한 형태에 대한 개념화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정서조절곤란, 공격성,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조절된 매개모형으로 개념화시켜 <그림 1>에 나타내었고, 가설은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 가설 1> 가정폭력과 공격성의 관계를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할 것이다.

<연구 가설 2> 정서조절곤란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지지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연구 가설 3> 가정폭력이 정서조절곤란을 경유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의존할 것이다.



<그림 1> 연구 모형

II.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방법

만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2023년 12월 15일에서 26일까지 온라인 구글 설문을 활용하여, 자기 보고 방식의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은 직접 동의를 할 경우에 응답하였으며, 심리적 불편감이 발생 시 본인 의지로 상시 중단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으며, 응답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이 발생 시 심리적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고 동의란에 대상자가 직접 체크 후 응답을 하였다. 분량은 대략 15-20분 소요되었으며, 응답 후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쿠폰을 제공하였다. 회수된 설문 총 330부 중에 부적합한 응답의 14부는 제외하고, 총 316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참여자는 남성 93명(29.4%), 여성 223명(70.6%)으로 만 18-47세 미만까지 연령이 포함되었으며,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28.76세($SD=6.11$ 세)로 나타났다.

2. 조사도구

1) 가정폭력 목격과 경험 척도

해당 척도는 Straus et al.(1996)의 CTS2(conflict tactics scale 2)를 토대로 백경임(1998)이 국내 아동용(자녀)으로 재타당화한, 총 25문항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보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구성은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상해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모의 폭력에 대해 동일한 내용을 응답할 수 있으며, 부친과 모친의 폭력을 합산한 총점을 사용한다. 본 척도의 응답은 '자기 경험 일치 여부'에 따라 Likert 척도 5점을 통해 1점(없음)-5점(매우 자주)까지 응답할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에 많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검사 결과, '부'에 대한 '모'의 폭력은 Cronbach's α 는 .81이고, '모'에 대한 '부'의 폭력은 Cronbach's α 는 .94로 나타났다.

2) 공격성 척도

공격성 척도는 Buss & Perry(1992)의 척도를 토대로 하고, 권석만·서수균(2002)이 재타당화한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의 하위 척도는 언어 및 신체 공격성, 적대감,

분노감이며, 총 2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본 척도의 응답은 Likert 척도 5점을 통해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까지 응답할 수 있으며, 합산된 총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83으로 나타났다.

3) 정서조절곤란 척도

해당 척도는 정서조절 곤란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Gratz & Roemer(2004)가 36문항의 DERS를 개발한 것을 국내의 조용래(2007)가 변안 및 타당화 과정을 거친 한국판 정서조절 곤란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조용래(2007)의 연구에서 타당화를 위해 요인분석한 결과 17번 문항이 다른 문항들과 비교했을 때 적합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 제외했다. 하위요인은 총 6개로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부족, 충동 통제곤란, 정서적 명료성 부족,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목표 지향적 행동 수행 어려움, 정서조절전략 접근 제한 등이 있다. 5점 Likert 척도를 통해 5점('거의 언제나 그렇다')-1점('거의 그렇지 않다')로 스스로 판단하여 평가하고, 총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곤란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95로 나타났다.

4) 사회적 지지 척도

사회적 지지 척도는 박지원(1985)의 초기 척도를 김연수(1995)가 재수정을 하여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5문항, 4개의 하위 영역인 물리적 지지(6문항), 정보적 지지(6문항), 정서적 지지(7문항), 평가적 지지(6문항)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척도 5점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96으로 나타났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SPSS Macro Process 및 SPSS 23.0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첫째,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 도구들의 신뢰도를 위해 변인들의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각 변인들의 관계를 확인했다. 넷째, 가정폭력이 정서조절곤란을 통해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기 위해 Process 4번 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섯째,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사회적 지지가 정서조절곤란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Process 14번 모형을 활용하여 가정폭력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 간의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고, 표준편차와 평균과 함께 이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정폭력은 정서조절곤란 및 공격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각각 순서대로 $r=.174$, $p<.01$; $r=.388$, $p<.01$),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r=-.267$, $p<.01$). 아울러, 정서조절곤란은 사회적 지지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r=-.370$, $p<.01$), 공격성과는 유의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r=.341$, $p<.01$).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와 공격성은 부적 상관이 유의하였다($r=-.302$, $p<.01$). 그 외, 사용한 변인들의 정규성 가정 검증을 위해 첨도와 왜도를 산출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변인들 간의 상관($N=316$)

	1	2	3	4
1. 가정폭력	1			
2. 정서조절곤란	.174**	1		
3. 사회적 지지	-.267**	-.370**	1	
4. 공격성	.388**	.341**	-.302**	1
평균	97.69	86.54	96.67	67.33
표준편차	39.93	22.55	16.01	16.43
첨도	6.05	-1.12	0.11	-0.28
왜도	2.41	-0.33	-0.75	0.16

* $p<.05$, ** $p<.01$, *** $p<.001$.

가정폭력이 정서조절곤란을 통해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검증했다(표 2). 첫째, 가정폭력이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했다($\beta=.174$, $p<.01$). 둘째, 가정폭력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했다($\beta=.388$, $p<.001$). 셋째, 가정폭력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된 상태에서 정서조절곤란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했다($\beta=.282$, $p<.001$).

넷째, 정서조절곤란의 효과가 통제된 상태에서, 가정폭력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했다($\beta = .339, p < .001$).

그다음, 가정폭력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을 실시한 후, 해당 결과를 <표 3>에 제시했다. 그 결과, 간접효과에 대한 비표준화 추정치는 0.020으로 나타났고, 이는 가정폭력 원점수가 1점 증가하면, 정서조절곤란을 통해 공격성 원점수를 0.020점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간접효과 비표준화 추정치에 대한 95% 신뢰구간의 하한-상한값이 각각 0.004와 0.045로 나타난 결과,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에 0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가정폭력이 정서조절곤란을 통해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함을 시사한다.

<표 2> 가정폭력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N=316)

독립변수	종속변수	B	SE	β	t	R ²	F
가정폭력	정서조절곤란	.098	.037	.174	2.684**	.026	7.203**
가정폭력	공격성	.160	.025	.388	6.388***	.147	40.809***
가정폭력	공격성	.140	.024	.339	5.750***	.221	33.733***
정서조절곤란		.205	.043	.282	4.774***		

* $p < .05$, ** $p < .01$, *** $p < .001$.

<표 3> 부트스트래핑 방법에 의한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N=316)

변수	Effect	95% 신뢰구간 (bias-corrected)		
		Boot S. E.	LLCI	ULCI
간접효과	0.020	0.011	0.004	0.045

Boot S. E. = 부트스트랩을 통해 산출된 표준오차; LLCI, ULCI =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상한값.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가 정서조절곤란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정서조절곤란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결과(표 4), 공격성에 대한 2개의 변인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했다($B = .006, p < .05$). 이는 정서조절곤란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나온 각각의 예측변인에 대한 상수 및 비표준화된 회귀계수를 바탕으로 원점수 회귀방정식을 구성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평균 및 표준편차를 바탕으로 평균에서 아

래로 1 표준편차 떨어진 점수, 평균 점수 그리고 평균에서 위로 1 표준편차 떨어진 점수를 사회적 지지의 저수준, 중수준, 고수준으로 배정했다. 정서조절곤란이 공격성에 끼치는 영향의 경우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상이 하였으며, 이 결과는 정서조절곤란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가지는 조절효과가 유의함을 나타낸다(그림 2).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지가 무슨 조건에서 조절효과가 발생하는지 보았다. 사회적 지지의 어느 영역에서 정서조절곤란이 공격성에 끼치는 영향이 유의하고, 타 영역에서는 유의하지 않은지를 ‘상호작용 탐색’이라 명명하였다. 이를 단순기울기 분석이라고 불리는 특정 값 선택 방법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정서조절곤란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평균에서 아래로 1 표준편차 떨어진 점수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평균 점수, 그리고 평균에서 위로 1 표준편차 떨어진 점수 두 조건에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표 4〉 정서조절곤란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N=316)

단계	독립변수	B	S.E.	β	t	R ²	F
1 단계	(상수)	67.328	.998		67.475***	.144	20.504***
	정서조절곤란	.193	.048	.265	4.048***		
	사회적 지지	-.209	.067	-.204	-3.110**		
2 단계	(상수)	68.126	1.057		64.456***	.158	15.433***
	정서조절곤란	.169	.049	.231	3.461**		
	사회적 지지	-.230	.067	-.224	-3.413**		
	정서조절곤란 × 사회적 지지	.006	.003	.134	2.154*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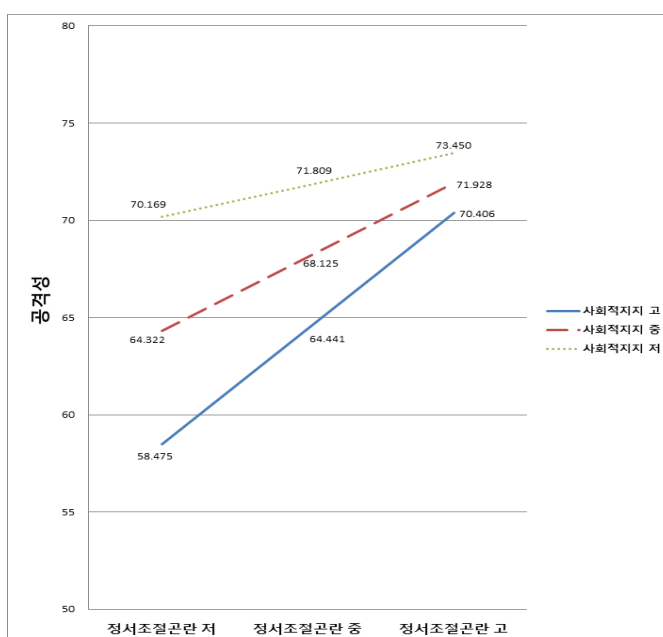
〈표 5〉 조절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N=316)

사회적 지지 수준	사회적 지지	B	S.E.	t
저수준(M-1SD)	80.663	0.073	0.073	0.993
중수준(M)	96.672	0.169	0.049	3.461**
고수준(M+1SD)	112.682	0.265	0.058	4.579***

*p<.05, **p<.01, ***p<.001.

Process Model 14번 모형 분석의 조절된 매개 지수를 활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신뢰구간 95%의 하한 및 상한값이 각 0.001과 0.004로, 정서조절곤란

의 매개효과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지지 조절효과는 유의했다(표 6). 추가로,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았다(표 7). 그 결과, 가정폭력이 정서조절곤란을 통해 공격성에 끼치는 간접효과는 사회적 지지가 평균에서 아래로 1 표준편차 떨어진 점수인 조건에서 유의하지 않았다(Effect=0.007, 95% 신뢰구간: -0.008~0.023). 반면, 사회적 지지가 평균 점수인 조건에서는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으며(Effect=0.015, 95% 신뢰구간: 0.002~0.035), 사회적 지지가 평균에서 위로 1 표준편차 떨어진 점수인 조건에서도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Effect=0.023, 95% 신뢰구간: 0.005~0.052).



〈그림 2〉 정서조절곤란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표 6〉 조절된 매개 지수에 대한 유의성 검증(N=316)

변수	Index	95% 신뢰구간 (Bias-corrected)		
		Boot S. E.	LLCI	ULCI
사회적 지지	0.001	0.001	0.001	0.004

주. Bootstrap 표본은 10,000번 추출함. Boot S. E. = 부트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여 산출된 표준오차; LLCI, ULCI=95% 신뢰구간 사이에서의 하한-상한값.

〈표 7〉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른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N=316)

사회적 지지 수준	사회적 지지	Effect	Boot S. E.	95% 신뢰구간	
				LLCI	ULCI
저수준(M-1SD)	80.663	0.007	0.008	-0.008	0.023
중수준(M)	96.672	0.015	0.008	0.002	0.035
고수준(M+1SD)	112.682	0.023	0.012	0.005	0.052

Boot S. E. = 부트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여 산출된 표준오차; LLCI, ULCI = 95% 신뢰구간 사이에서의 하한-상한값.

IV. 결론

본 연구는 가정폭력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가정폭력이 정서조절곤란을 통해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 효과를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지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첫째, 가정폭력은 사회적 지지, 정서조절곤란 및 공격성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고, 사회적 지지는 정서조절곤란 및 공격성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정서조절곤란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도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이 결과는 가정폭력 경험이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내적 작동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아, 연인과의 갈등 상황에서 부적절한 공격성이 발현되어 데이트 폭력이 높아지는 결과(고가영·최응렬, 2022)와 맥을 같이 하며, 가정폭력은 청소년들의 정서적 자기조절을 어렵게 만든다는 결과와(김우준, 2012)도 유사하다. 자기조절 능력이 낮은 아동은 대인관계에서 충동적, 공격적인 성향이 있으며 정서적, 사회적인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Goodman et al., 1993). 이는 정서조절 능력이 뛰어난 청소년들은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관계적 공격성의 수준이 낮다는 결과가(이희경 외, 2013) 뒷받침한다. 사회적 지지는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며(정경택, 2003), 사회적 지지가 충분히 제공되면 공격성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숙 외, 2014).

둘째,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본 결과, 가정폭력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이 결과는 부정적 양육행동을 받은 아동들은 자신의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어 공격적 성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이원영(198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즉, 가정폭력은 정서조절곤란의 증가에 기여하고 정서조절곤란은 공격성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서조절곤란은 심리적인 개입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치료적 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상담 장면에서 부정적 정서 발현 시 경험되는 감정에 평가 및 판단 없이 주의를 기울여, 이를 수용함으로써 정서조절곤란을 감소시키는 개입이 공격성 감소를 목표로 하는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사회적 지지가 정서조절곤란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갖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정서조절곤란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정서조절곤란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연구결과(이경진·이창현, 2023)와 맥락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상호작용효과 그래프를 통해 조절효과의 양상을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서조절곤란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었다. 즉,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정서조절곤란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다만, 그래프의 전반적 형태를 보면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른 기울기 차이는 크지 않은 반면,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공격성에 큰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지지의 효과가 정서조절곤란의 효과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가정폭력이 공격성 사이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이 가지는 간접효과가 사회적 지지에 의존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가정폭력과 정서조절곤란이 정적 관계이며, 이는 공격성이 증가되는 것이 가정폭력에서 공격성까지의 보편적 경로지만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그러한 경로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가정폭력이 정서조절곤란을 통해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사회적 지지가 평균에서 아래로 1 표준편차 떨어진 점수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평균 수준, 평균에서 위로 1 표준편차 떨어진 점수에서는 유의했다. 간접효과 크기의 변화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가 증가할수록 간접효과의 절대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적 지지의 영향에 비해 미미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평균에서 아래로 1 표준편차 떨어진 점수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구간에서 가정폭력이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할 뿐 아니라 그러한 간접효과의 강도가 점차 감소함을 의미한다. 이는 대상자가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많이 경험하게 될수록 정서조절곤란을 통해 가정폭력이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가 감소하게 되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가정폭력 경험이 많을수록 정서조절곤란이 증가하면서 결국 공격성까지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 공격성이 증가하는 과정에 대한 일반적 고정입을 나타내는 동시에 그와 같이 공격성이 강화되어 가는 과정이 사회적 지지의 증진에 의해 완화 혹은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는 공격성이 상승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와 그러한 과정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차 변인에 대한 시

사점을 제시한다. 공격성을 이유로 상담을 받는 경우, 그들의 가정폭력 경험에 대하여 파악하고 이로 인한 정서조절곤란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정서조절곤란을 완화하는 한편으로, 사회적 지지 등을 파악하여 정서조절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입하는 것이 공격성 감소에 효과적임을 본 연구 결과는 제시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가정폭력이 정서조절곤란을 통해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검증하였고, 사회적 지지가 이러한 간접효과를 조절함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공격성이 증진하게 되는 과정과, 이를 통해 발생하는 개인차까지 설명하는 모형을 제시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관계에 대한 조망을 통합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주로 매개효과 연구를 통해 변인들의 관계에만 중점을 둔 기존의 연구와 달리 범위를 확장하여, 변인들의 관계가 개인마다 상이하게 나타나는 양상에 관하여 경험적인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검증한 것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또한, 변인 간의 통합적인 조망의 제시는 공격성 감소를 위한 개입에 대해 더욱 높은 수준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가정폭력의 경험은 정서조절곤란을 증가시키며, 이는 다시 공격성 증가로 이어지는 일련의 발달적 경로를 지닌다. 그런데 이러한 경로의 발달은 사회적 지지의 의해서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가정폭력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가정폭력에서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정폭력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기존에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기존의 연구들은 교사, 양육자 등의 권위자나 애착을 중심으로 공격성을 예측하는 연구가 대부분으로(이충권·양혜린, 2017) 정서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부족하다. 반면 본 연구는 가정폭력과 공격성이 이어지는 경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정폭력이 공격성으로 발달하게 되는 과정에서 정서조절곤란과 같은 정서적 요인의 변화가 수반되며 이러한 변화는 곧 공격성의 증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이 공격성으로의 경로와 그 경로에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상담 현장에서 가정폭력을 형성한 내담자의 공격성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부정적 자기개념에서 비롯된 정서조절곤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김나예, 2019; 남연주 외, 2022). 따라서 상담 장면에서 정서조절곤란에 대한 개입, 즉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훈련을 포함하는 것이 공격성의 감소에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치료적, 학문적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한계점이 존재한

다. 따라서 제한적 측면을 살펴보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온라인 형식의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참여자의 반응이 솔직하지 않거나, 응답을 과장 또는 축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응답의 결과를 통한 연구 결과를 참여자의 실제 행동에 객관적으로 반영시키는 것에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의 연구 대상을 일반 성인으로 선정한 것이 병리적 수준의 일반 성인 임상 집단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실제 임상 장면의 우울증 진단을 받은 일반 성인 집단으로 연구를 재진행하게 되면, 본 연구와의 결과가 상이하게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임상 장면을 포함하였을 때 일반화시키기에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형 설계로 구성되어 있어 단일 시점으로 연구에 사용한 모든 변인을 동시에 측정하였다. 따라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변인들의 인과적 관계를 더욱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향후 종단형 설계를 해 볼 수도 있음을 제언한다.

【참고문헌】

- 고가영·최응렬(2022),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불안정 성인애착이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학**, 16(2): 51-69.
- 권구택(2018),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검증, **인문사회21**, 9(2): 25-36.
- 권석만·서수균(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2): 487-501
- 김나예(2019), 청소년의 학대경험과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인문사회21**, 10(4): 1423-1434.
- 김승경·송미경·김미경(2014),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R09: 1-299.
- 김연수(1995), 정신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지지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우준(2012), 폭력성의 중독 문제에 관한 고찰, **한국중독범죄학회보**, 2(2): 31-44.
- 김재엽·송아영(2007), 가정폭력노출경험과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대한 연구: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3: 99-125
- 김진숙·문현주·황승일(2014),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가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27: 1-24.
- 남연주·유은식·김한샘·정선영·강근모(2022),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사이버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9(1): 1-28.
- 박애리(2014), 부모간의 폭력노출 및 학대받은 경험이 아동의 공격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1(10): 503-528.
-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형원(2004), 가정폭력 노출 아동의 공격행동 감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참여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7: 101-130.
- 백경임(1998), CTS(Conflict Tactics Scales) 2의 자녀용으로의 수정 및 한국 대학생에 자녀용으로의 대한 타당성 검증, *Human Ecology Research (HER)*, 36(2): 77-89.
- 송인한·권세원·정은혜(2011), 청소년의 차별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2): 199-223.

- 이경진·이창현(2023), 일반 성인의 가정폭력 경험과 공격성의 관계: 사회적 지지로 조절된 자기통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8(4): 447-476.
-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충권·양혜린(2017), 가정에서의 학대·방임피해경험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애착, 교사애착, 또래애착의 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9(1): 29-55.
- 이희경·박미란·이지연(2013), 초등여학생의 우정관계 질투정서와 관계적 공격성에서 정서 조절능력과 애착의 조절효과, **한국아동교육학회**, 22(22): 207-229.
- 정경택(2003),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 교육**, 12(2): 151-162.
- 정기원·서현숙(2007), 가정폭력예의 노출이 청소년의 비행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노출 유형별 및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4: 49-73.
- 정윤정·이창현(2022), 고립감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효과: 사회적 지지로 조절된 적응적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 **인문사회21**, 13(2): 1501-1516
- 조용래(2007), 정서조절곤란의 평가: 한국판 척도의 심리측정적 속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4): 1015-1038.
- 주소영·이양희(2015), 가정폭력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통제와 또래애착의 종단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2(11): 299-336.
- 최지경(2007), 학대받은 아동과 일반아동의 정서지능과 정서조절의 비교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지영·배라영(2014),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2000~2013년, **인간발달연구**, 21(1): 183-202.
- Accordino, D. B., & Accordino, M. P. (2011), An Exploratory Study of Face-to-Face and Cyberbullying in Sixth Grade Students, *American Secondary Education*, 40(1): 14-30, <<https://www.jstor.org/stable/23100411>>.
- Berkowitz, L. (1989), 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 Examination and reformul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06(1): 59.
- Breuer, J., & Elson, M. (2017), Frustration-Aggression theory, *The Wiley handbook of violence and aggression*, 1-12.

- Buss, A. H.,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3): 452-459.
- Emery, C. R. (2011), Controlling for selection effe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behavior problems and exposure to intimate partner viol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6(8): 1541-1558.
- Gelles, R. J. (1997), *Intimate violence in families*, Sage.
- Goodman, S. H., Brogan, D., Lynch, M. E., & Fielding, B. (1993),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in children of depressed mothers, *Child development*, 64: 516-531.
- Graham-Bermann, Sandra A., & Hughes, Honore M. (2003), Intervention for children exposed to interparental violence (IPV): Assessment of needs and research priorities,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6(3): 189-204.
- Gratz, K. L., & Roemer, L. (2004),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Development factor structure,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6(1): 41-54.
- Hawkins, J. D., Catalano, R. E., & Miller, J. Y. (1992),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Alcohol and Other Drug Problems in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Implications for Substance Abuse Preven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2: 64-105.
- Hupcey, J. E. (1998). Clarifying the social support theory—research linkag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7(6), 1231-1241.
- Kumar, R., Koirala, P., & Tiwari, S. C. (2015), Higher mental functioning in dementia: A status assessment, *Journal of Geriatric Mental Health*, 2(1): 42-45.
- Luxenberg T, Spinazzola J., & van der Kolk, B. A. (2001), Complex trauma and disorders of extreme stress(DESCOS): Diagnosis, Part One, *Assessment Direction in Psychiatry*, 21: 377-380.
- Roberton, T., Daffern, M., & Bucks, R. S. (2015), Beyond anger control: Difficulty attending to emotions also predicts aggression in offenders, *Psychology of Violence*, 5(1): 74-83.

-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U. E.,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Terr, L. C. (1991), Childhood traumas: An outline and overview,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8: 10-20.
- Wang, M. T., & Eccles, J. S. (2012), Social Support Matters: Longitudinal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ree Dimensions of School Engagement From Middle to High School, *Child Development*, 83(3): 877- 895.

【국문초록】

가정폭력이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사회적 지지로 조절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김 민 수 · 이 창 현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가정폭력이 공격성에 어떤 심리적 과정을 통해 영향을 주는지 보고자 한다. 따라서, 가정폭력과 공격성의 관계를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하는지 파악하고, 사회적 지지가 앞서 두 변인의 매개효과를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전국에 거주하는 연구대상 31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여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내용: 첫째, 가정폭력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둘째, 정서조절곤란과 공격성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였다. 셋째, 가정폭력과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가 사회적 지지로 인해 조절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제언: 이 결과는 상담 현장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해 공격성을 호소하는 내담자에게 정서조절곤란 혹은 사회적 지지를 포함한 개입을 실시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핵심어: 가정폭력, 정서조절곤란, 사회적 지지, 공격성, 조절된 매개효과

